

# 원희룡이나 최재형이나... 4위 싸움 박빙

###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앞두고 여론조사서 원 전 지사 4위 윤석열·홍준표·유승민 '톱3' 구도 속 마지막 한 명 관심

국민의힘 대권주자를 4배수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10월 8일)에서 4위 자리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위를 다투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름 견고한 지지율로 안정적인 톱3 구도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누가 4강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할 지를 놓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맞붙는 형국이다.

최 전 원장이 다크호스로 정치권에 뛰어든 때까지만 해도 '톱4'를 점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시간이 갈수록 차별화한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지지율 고전을 이어가면서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최 전 원장은 2.1%로 5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4강 밖에 밀려나 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8%로 최 전 원장을 앞섰다.

원 전 지사 측은 1차 컷오프 후 TV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자평했다.

원 전 지사 캠프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중앙 정치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토론에서 준비된 면모를 보여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캠프 해체를 선언하는 동시에 '최재형다움'을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뒤 '우클릭' 행보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총선 당시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선관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부정선거 의혹을 내세워 강경 보수층에 기대는 뉘앙스다.

그렇지만 야권 내부에서조차 좀처럼 힘을 못 받는 '부정선거 프레임'

에 대한 회의적 여론을 의식한 듯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이 존재감을 과시하며 4강에 반드시 들겠다는 각오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TV 토론에서)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주 타겟이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제 진가를 알아보시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 역시 여론전을 통해 4강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방송토론 나선 국민의힘 대권주자들. 국민의힘 안상수(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원희룡,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제2차 방송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본예산 민생 경제 살리기로 편성”

###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성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하 코로나 대응 특위)가 23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라고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코로나 대응 특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 대응 특위는 “나락에 떨어진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본예산은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택배노동자의 안전과 보호에 필수적인 ‘택배 노동자 쉼터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법적 정 없는 제주를 위한 ‘통합형 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전환’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약속도 적극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이상민기자

# 도민 50여명 이재명 지지 선언 “혁신과 추진력 갖춘 지도자”

종교인과 예술인, 장애인운동가, 주부 등 제주도민 5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2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빠르고 신중하게 대처하며, 다양한 국내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지도자는 개혁과 혁신, 추진력과 포용력을 갖춰야 하고, 이런 지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삶과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개혁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면서 “공정과 평화를 염원하는 제주도민은 이 후보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힘써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백남이 시인과 이정훈 목사, 임문철 신부, 이준섭 장애인운동가, 이남주 사회복지사 등 5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출구 못 찾는 ‘대장동 내전’... 입씨름 격돌

### 이재명 캠프 ‘본질 천착하라’ vs 이낙연 캠프 ‘불안한 후보론’ 추미애·김두관은 이재명 엄호... 이낙연 책임론 재차 거론

더불어민주당 양강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최대 승부처가 될 호남 경선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신경전은 절정에 달했다.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줄지어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동시에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에도 화살을 돌렸다.

부·울·경 총괄선대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수사를 통

해 밝혀질 일”이라며 “이낙연 캠프는 사건의 본질에 천착했으면 한다”고 꼬아붙였다.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건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익을 본 민간 투자인들과 관련 있는 자들은 이 지사가 아닌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이낙연 캠프는 대장동 개발을 비롯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안한 후보론’을 공격 포인

트로 띄우고 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민간인이 사실상 혜택을 받아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이것이 이 지사 말처럼 진짜 ‘국민의힘 게이트’ 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을 둘러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관찰됐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낙연 후보를 뽑자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여론은 부·울·경과 경기, 서울로도 금세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선 3위를 기록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이 지사를 엄호하는 한편 이 전 대표에게는 가시둔힌 말을 쏟아냈다.

추 전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지사 측에서 나올 게 없을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낙연 대표 측에서 이 지사가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들고 왔기 때문”이라고 ‘이낙연 책임론’을 재차 거론했다.

김두관의 의원도 이 지사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이 이제 와서 난장판의 소재가 된 이유는 오로지 마타도어 때문”이라며 “보수인론이 만들어 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 당 후보까지 부화뇌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림**

2021 JDC와 함께  
생각을 증추게 하는

## NIE 공모전

**공모기간** 2021년 10월 18일(월)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립 (가시활동: 2021년 1월1일자 신문부터 가능)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개인 > 대상 1명(상금 40만원)  
> 금상 4명(각 20만원)  
> 은상 6명(각 10만원)  
> 동상 11명(각 5만원)

▶단체 > 대상 1팀(상금 40만원)  
> 최우수 9팀(각 15만원)  
> 우수 8팀(각 10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로 구분 응모 단, 일반부로는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학급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과 팀부문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자 앞)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10-2024-5692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회복 지원

# 제주형 고용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 시행 안내문

**지원내용** 80만원

**지원대상**

- '21. 8. 31일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 5. 1. ~ 8. 31.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 '21. 5. 1 ~ 8. 31. 기간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지원요건**

- (자격요건) ① '21.5.1 ~ 8.31. 기간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 또는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21. 1월 ~ 8월 연소득(연수입)이 3,400만원 이하인 자
- \* 소득이 있는 자 ①과 ② 중 하나 선택
- ① '21. 5월 ~ 8월 중 1회 이상 월 소득 50만원 이상인 자
- ② '21. 5월 ~ 8월 소득 합계 100만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대상: 신규 신청자 (특고·프리랜서 중 정부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지원 받지 못한 자)
- 신청기간: 2021년 9월 24일(금) ~ 10월 15일(금)
  - \* 업무시간(09:30 ~ 17:00) 내 방문자에 한하여 당일 신청 접수
- 신청서류: 신분증 및 제출서류(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www.jejuwsc.org) 지참
- 접수처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제주시 수목원길 9) ☎ 070-4186-9310~4
  - (서귀포시) 서귀포고용센터(서귀포시 동홍로 186) ☎ 064-710-2557~6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 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기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도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